

체재형 시민농원을 통한 교류와 도시주민의 새로운 마음의 고향만들기

兵庫縣八千代町産業課長

細尾 勝博(호소오 가츠히로, 관광 카리스마 제1진)

八千代町(야치요초)는 인구 6,200명, 면적 5.3km²의 산촌이다. 주요 산업은 2차세계대전 이전은 2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언 두부」, 그 이후는「播州織」이 유명하다. 또한 町의 상징적인 것으로는 매년 9월15일에 경로의 날을 개최한 것에 기인해서 1944년에 정부에 제안하여「경로일 발상의 마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농촌의 교류의 시작

八千代町은 그린투어리즘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선언한 것이 1990년 이었다.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町이 도시측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보발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시주민이 방문하여 쉬고 머무는 것이 가능한 시설이 없다면 그린투어리즘은 진전될 수 없기 때문에 1990년에 「꽃과 음악과 먹거리가 협주하는 바바리아의 마을」, 「에텔 사사우리」를 건설하여 개장했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한 町內를 周遊하는 농림업체험이나 자연학습의 場을 설정하는 일로서 「하치요-팬」의 개척과 발굴을 진전시켰다. 더욱이 1990년부터 한층 더 교류촉진과 도시주민의 새로운 고향만들기와 더불어 정주화를 목적으로 「후로이텐 -야치요」의 체재형시민농원을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정비하였다. 당시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의 사상을 도입하여 八千代風으로 개선한 시민농원으로써 전국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八千代町는 키즈-랜드(유치원)부터 채플, 町營호텔, 농촌레스토랑, 산지 직매소나 복지시설

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독일풍으로 統一해 디자인화 하였으며, 지금은 그것이 八千代町의 심볼로써 정착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八千代町의 풍요로운 자연, 맑은 공기와 물, 정다운 마음씨의 사람들과 교류에 의해 八千代町의 팬이 되고, 八千代町와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도시주민을 육성한 것이 바로 이 시민농원이다.

中國고속도로의 瀧野(다키노)?社(야시로) 나들목으로 부터 17분 정도 자동차로 달리면 배후에 사계절마다 꽃이 피어나는 城山(시로야마)가 우뚝 솟아 있고, 그 산 기슭에는 겐시(顯示)반딧불이나 구로마도 반딧불이 난무하는 清流野間川이 흐르는 풍경을 가진 俵田(다와라다) 마을이 있다. 그 한 모퉁이에 체재형 시민농원이 있다. 1993년부터 제1기, 제2기에 걸쳐 60구획 60동을 건설한 것이다. 당초에는 도시측의 입주자와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문화의 만남, 그것이 나가서는 경제적으로 비즈니스화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 그 선택의 기로가 과제의 하나였다.

우선은 관리모체인 俵田集落에는 1992년에 결성된 「후로이텐 -八千代관리조합」으로부터 입주자 「후로이텐 八千代 친구의 모임」의 결성을 제안하여 1993년 4월에 「友の會(친구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재빨리, 쌍방으로부터 12명씩의 임원을 선출하여 「교류방법」에 대해 논의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동년 6월부터 매월 3회를 「교류의 날」로 정하고, 첫주 토요일은 「음악을 즐겁게 보는 모임」, 둘째주

체재형 시민농원을 통한 교류와 도시주민의 새로운 마음의 고향만들기

토요일은 「노래방 교실」그리고, 셋째주 토요일은 「도시문화 농촌문화를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이 개최되어 도시주민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다. 그 결과 사람의 교류, 문화교류가 급속히 깊어졌다.

한편, 모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이벤트기획을 해 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 봄의 골든 위크에는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이용한 「자운영 축제」의 기획이 만들어졌다. 신록을 배경으로 논밭에 온통 자운영이 피고 858마리의 고이노보리(천으로 만든 잉어)가 이산에서 저산으로 유영하는 가운데,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이 기획부터 준비, 뒷마무리에 이르기 까지 역할분담으로 처리해 간다. 또한, 6월에는 3주간에 걸쳐 1,300㎡에 이르는 반딧불이가 머무는 길의 천변을 도시주민 수천명 매일 찾아와 반딧불이를 통해 환상의 세계에 잠긴다. 가을에는 배후의 城山(시로야마)에 눈에 비칠 것 같은 단풍이 빛어내는 가운데 도시주민 주최에 의한 「수확제」는 도시주민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충만하여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식문화의 꽃이 어우러져 피어난다.

지역주민과 다채로운 교류의 조장

교류를 말한다면 <후로이덴-八千代> 구역의 한 가운데에 「교류회관」이 있어, 토요일?일요일, 휴일에만 개관하여 이용한다.

도시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유일한 커뮤니티의 장소이고 쌍방의 정보교환의 장소이기도 하다. 회합에서 된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茶 만들거나 실내홀을 이용한 각종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神事나 祭事,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교류의 테두리가 매년 넓어져 가고 있다.

제1탄 후로이덴 八千代(전국에서 선구적인 체재형 시민농원)(기쁨이 있는 농원)

후로이덴 야치요의 총 면적은 3만1천㎡로 이 지역 안에는 60동의 체재형 시민농원과 1동의 관리동 및 커피샵이 있는 교류회관, 공유농원, 야외무대 등

이 있다. 1구획 안에도 주차장스페이스가 있고, 체재시설내에는 냉난방, 샤워장 겸 화장실, 냉장고, TV, 전화, 주방 등이 완비되어 있다. 1구획의크기는 약300㎡로서 농원이 약 80~120㎡, 과수원, 화단, 잔디광장 등의 한 가운데는 28㎡의 체재형시설이 있다. 이 양식에는 독일 뮌헨 교외의 클라인 가르텐을 八千代風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용요금은 연간 276,000엔(円)이다.

제2탄 브라이벤 오오야(치유를 느끼는 농원)



▲ 브라이벤오오야의 전경

2002년 4월에 개장한 八千代町에서 두 번째의 체재형시민농원은 20구획, 20호동가 그린바레이의 가장 친 환경적인 에리어로서 20수년간 유휴지, 황폐지로 방치되어 온 25,000㎡의 다랑이논을 복원하여 부지 전체를 배리어 후리화 하여 에리어내의 농지의 두렁까지 포장이 시공되고, 또한, 외등은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벤트로서는 간벌체험, 목공예 교실, 사슴요리의 연구 등을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이 하나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이 「브라이벤 오오야」가 연간 305,000엔(円)이다. 체재동 시설 34㎡로써 내부 설비는 후로이덴-八千代와 똑같다. 어느것이던 체재형 시민농원은 50명 내지 150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

제3탄 브루멘 야마토(꽃을 사랑하는 농원)

町内の 南校區, 北校區에 체재형시민농원의 거점

도농녹색교류

이 만들어졌지만, 西校區의 거점이 목욕탕동과 각종 체험동을 갖춘 「나고미노사토 야마토」의 서쪽에 인접해서 16,500㎡의 에어리어에 30구획, 30동을 2004년에 정비했다.

이 시설은 Agri·Sun·Dial(농업의 해시계)을 심볼로써 태양의 은혜, 나가서는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농업의 훌륭함에 공감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에어리어를 포함한 주위 전체를 꽃의 정원화, 꽃을 통해 「사랑」 「마음」 「우정」 「동정심」 「유대감」을 배양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연간 396,000엔(円)이다.

클라인 가르텐을 통한 반정주

이처럼 3개의 클라인 가르텐(체재형시민농원)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서 반정주나 일시체재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특히, 농촌에서 체재형시민농원의 생활은 밭을 일구는 것, 안심하고 계절의 먹거리를 먹는 것, 자연과 농림업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점점 잃어 가고 있는 「삶의 활력」 되찾고자하는 “農”의 가치감을 도시와 농촌의 주민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공생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감의 창조나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새로운 고향 만들기

이처럼 체재형시민농원을 통해서 입주자(도시주민)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행위가 이미 자신들의 생활의 일부이고, 이곳 「八千代町」를 마음의 제2 「고향」으로서 애착을 갖고 방문하고 있다.

체재형시민농원은 단순히 중산간지역의 주말형 체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원을 통해서 八千代町의 풍토나 경관, 인정, 인간성, 나아가서는 도시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지역)에 일시적 체재나 반정주 하므로써 보다 건강하고 평온함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생활에의 욕구가 점점 확산 되어옴과 동시에 점점 고향을 잃어 가고 있는 도시주민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어서 매력있는 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 욕구는 크나 큰 수요로써 충

분히 현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도시주민이 교류와 어그리라이프를 통해서 농촌에 옮겨와 사는 것은 풍부한 인재 유치나 새로운 고향 만들기, 활기 넘치는 농촌사회의 형성 도시와 농촌과의 공생 대류로 연계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전 언

【고심·어려움】

체재형시민농원은 1990년에 八千代町에서 시민농원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한 것이다. 당시 중산간 지역에서 체재시설이 있는 시민농원의 존재가 전국적으로도 드물고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화가 町内に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설치에 즈음해서는 모든 마을에 대해 모집을 하였고 의욕이 있는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八千代町 俵田의 첫 번째로서 프로이덴-야치요는 1993년 4월1일에 완성했다. 주민의 저항이나 반대는 기발한 사례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었다. 또한 실현을 위해서 1. 경영방침 2.농지권리 상황조사 3.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학습회나 교류이즘을 구사하기 위한 호스피탈리티의 존재 등이 주민 가운데 화제가 되어 적극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 개장 이후 도시측의 주민을 지역에 끌어들여 함께 쌓아올린 협동정신으로 세월이 흘러갔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운영방법이나 교류방법이 주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① 町나 地域에서는 도시주민 여러분에게 체재형 시민농원을 통해서 Agri-life나 치유의 장소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프로이덴야치요가 개장이후 12년이 경과 하였고 남은 세월은 어떻게 하던 도시주민이 町이나 地域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갖고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포인트이다.

②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심각한 중·대도시 주민이 자녀들과 함께 옮겨와 사는 시스템 만들기과 정주·영주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